



팀 회고

| | |
|---------|------|
| ■ 진행 상태 | 시작 전 |
| ■ 상위 작업 | ← 회고 |
| ◆ 태그 | |

Liked 좋았던 점

Learned 배운 점

Lacked 부족했던/아쉬웠던 점

Longed for 바라는 점

동료 피드백

권나라

김경현

김민석

근찬

하선혜

Liked 좋았던 점



1. 일단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좋아서 좋았다.
2. 역할 배분이 잘 되어서 좋았다.
3. 가용자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. (시도→ 개선안 논의 → 피드백 과정)
4. 프롬프트를 원없이 써보고, 구조와 분석을 하며 써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좋았다.

- 권나라 : 처음 참가한 공모전이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순위로 마무리 되어서 좋았습니다~
- 김경현 : 바쁜 일정에도 모두 최선을 다해 개선점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, 회의시간을 촘촘하게 짜서 시도→ 개선안 논의 → 피드백 과정이 짧은 시간 내 많이 이루어졌어요.
- 김민석 : 오랫동안 공모전에 출전했는데 다들 즐겁게 공모전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.
- 최근찬 : 데이터 / 기질 끝까지 참여 할 수 있었던거 같다.
- 하선혜 : 일단 결과물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잘 나와서 좋았어요! 첫 공모전 참여였는데 아주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. 프롬프트를 그동안 간단하게는 써봤는데, 이렇게 구조를 뜯어보고 비교해보며 했던 건 처음이라 또 새롭게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.

Learned 배운 점



기술적 부분

1. LLM활용 : 프롬프트 설계와 구조화 하는 법, AI를 도구로써 사용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,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
2. 웹 스크롤링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.

소프트 스킬적인 부분

1. 협업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. (실수와 개선안의 공유)
2.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며 탐색하는 과정 또한 의미가 있었다.

- 권나라 : AI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해도가 올라갔고 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프로젝트였다
- 김경현 : LLM 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게 되었고, 프롬프트로 리서치, 예측기법도출 등 문제와 해결책을 올인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. 프롬프트를 구조화/체계화해 명확한 명령을 내려야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좋았고, 그럼에도 인간의 발품 판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(노력 투자의 힘) , AI의 대답을 온전히 믿어서도 안된다!

- 김민석 : AI가 인간을 대체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,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단순히 전체를 Agent에 맡기기 보다는 AI를 도구로 사용해 효율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
- 최근찬 : 초반에 진행했었던 웹 스크롤링에 대해서 그동안엔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, 접근조차 안해봤었는데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던거 같아 좋았고, 이제껏 프로젝트를 하면서 LLM을 쓰기는 했지만, 지금까지는 이거 어떻게 해야해? 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. 고찰도 많이 했었던거 같다. 시장 조사의 중요성?
- 하선혜 : 일단은 프롬프트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활용만 했다면, 프롬프트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할지 고민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서, LLM 모델 자체에 대해 부딪히며 배우는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프로젝트는 앞에 맥락을 알고 있어 초반에 어느 정도 구조를 짜고 갔었는데,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처음에 헤매는 과정 또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느낀 것 같습니다.

Lacked 부족했던/아쉬웠던 점



1. 짧은 기간에 대한 아쉬움
 - 기간과 제출 횟수 제한이 있어서 더 다양한 시도를 못해본 것 같아 아쉽다.
 2. 공모전 요구사항에서 오는 제약사항
 - 공모전 요구사항 자체에 제약이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 보지 못해 아쉬웠다.
 -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아쉽다.
- 권나라 : 컨디션이 안좋아서 최대한 나의 역량을 못 쓴 것 같아서 아쉬웠다. 그리고 공모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했던 결과물에 대한 각각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.
 - 김경현 : 시간이 충분했다면, 리서치나 수요예측기법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했었을 것 같다. 제출을 해보고 나서야, 해당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- 공모전 제출자료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. 금일 발표 Q&A 질문들이 보완해야할 점으로

좋은 피드백이었고, 질문 중 페르소나 설정의 이유(카테고리별 선정이유, 페르소나 수 선정 이유 등), 싱글턴 프롬프트 텍스트 구성 부분을 보완해 보고 싶다.

- 김민석 : 시간이 촉박 했고 제약 상의 문제로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. 진행했던 키워드 분석 같은 것들도 개념을 제대로 알고 진행한 게 아니다 보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추려내지 못한 것도 아쉬웠고, 만약 혼자 참여했으면 제약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썼을 것 같은데 제출 제약, 데이터 사용 제약 같은 점들이 조금 아쉬웠다.
- 최근찬 : 프로젝트 초반 선혜님의 마일스톤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팀의 방향성? 같은 것들이 조금은 흔들렸던거 같아 아쉬웠고, 대회 특성상 제약을 건 부분이 많았기에 보다 다양한 접근은 안 나왔던거 같아서 아쉽긴한거 같다.
- 하선혜 : 시간이 짧아서 좀 더 다양한 검증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못해본 것 같아 아쉽다.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웠다면, 각자의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다. 개인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검증해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서, 중간중간 큰 흐름을 정리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Longed for 바라는 점



1. 마지막 2차 평가 결과물 제출까지 파이팅!
 2. 지금까지 자료들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화 하기!
 3. 공모전 의도에 맞게 좀 더 구조화해서 진행하고 싶다.
- 권나라 : 공모전 제출까지 열심히 불태우고 미친듯이 쌓인 자료들도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.
 - 김경현 : 우선, 마지막 제출까지 마무리를 잘해보고 싶고 데이터 공모전은 처음이었는데,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멤버 리멤버?
 - 김민석 : 만약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좀 더 구조화를 진행해 규격에 맞춰 진행이 됐으면 좋을것같다.

- 최근찬 : 1차적으로 발표 및 결과물 제출을 잘 끝냈으니, 앞으로 남아있는 2차 산출물 까지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마음. 마무리까지 잘. 공모전을 다음에 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다음에는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.
- 하선혜 : 일단 정신없이 공모전 제출을 위해 달리긴 했는데,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정리를 좀 하고 싶다. 마지막 솔루션 구조를 잘 잡아야 할 것 같다. 다음에 다시 공모전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빨리 감을 잡을 수 있기를..!

동료 피드백

| 일할 때의 방식, 태도, 특성, 장점 등

▼ 권나라

- 김경현 : 꼼꼼한 리서치의 노력, 대회의 규정/토크 자료 파악 등 모두 놓치고 있는 세세한 부분을 짚어줘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. PPT도 미감과 빠른손길로 아름답게 데코해줘서 좋았습니다 :)
- 김민석 : 몸 상태가 안좋으실 때도 여러 포인트를 집어서 좋은 점수로 대회의 방향성을 잡아주신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애매하게 걸돌수도 있었을것같은데 덕분에 프로젝트 진행에 큰 도움이 됐던것 같습니다.
- 최근찬 : 공모전의 변곡점이 됐던 포인트를 제공 해주셨던거 같아요. 처음에 다 각자 프롬프트를 넣어보다가 나라님 프롬프트의 결과가 나온 이후로 무언가 하나로 모이게끔 됐던거 같아서 의미 있었던거 같아요! 몸 아프셔서 제대로 못 하신거 같아 아쉽다 하셨는데 충분히 다 하신 느낌이라랄까..
- 하선혜 : 공모전 점수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...! 매몰되어서 흐름을 놓칠 때,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잡으며 방향성을 짚어주셔서 좋았어요. 중간중간 유머로 지친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팀원들 간 소통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

▼ 김경현

- 권나라 : 저희가 소통할 때마다 바로바로 말로 쉽게 정리해주셔서 소통이 더 원활했던거 같아요
- 김민석 : 중간마다 한번씩 정리해주신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 PPT 제작 등 언제나 어떤 분야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!

- 최근찬 : 이번 프로젝트로 처음 프로젝트를 같이 해봤는데 말씀하실때마다 언제나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!
- 하선혜 : 중간중간 방향성을 점검하고,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프로젝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.

▼ 김민석

- 권나라 : 공모전이 처음인 사람들이랑 같이 하셔서 답답하셨을텐데 공모전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! 기술적인 부분들이 구현되는 거 보고 놀라웠어요!!
- 김경현 : 중간 회의때마다, 논리의 허점이나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. 마지막 Q&A 답변의 자신감도 좋았습니다 😊
- 최근찬 :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민석님 덕분에 웹스크롤링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고,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분석 진행이 가능했던거 같습니다.
- 하선혜 : 민석님 덕분에 웹스크롤링 자료도 활용해보고, 부족했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어요. 민석님의 시각 덕분에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
▼ 근찬

- 권나라 : 프롬프트 개발시 여러시도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. 발표 내용도 많아서 혼자서 힘드셨을텐데 발표내용 잘 정리해서 잘 마무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.
- 김경현 : 매 시도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민해서 접근해서 든든했습니다. 마지막 발표때는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도 좋았고, 긴 프레젠테이션임에도 혼자 충분히 좌중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좋았어요!
- 김민석 : 데이터 분석 파트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제가 못보던 시선으로 접근하시거나 디테일하게 접근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. 발표 고생 엄청많으셨습니다!!!!
- 하선혜 : 프롬프트 검증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, 발표까지 준비하시느라 부담이 있으셨을텐데 다 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. 새로운 각도의 접근을 다양하게 해주신 덕분에 결과물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
▼ 하선혜

- 권나라 : 선혜님의 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~그리고 진짜 촌촌한 마일스톤덕분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노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채찍질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기록이 쌓이고 필요한 순간에 볼 수 있었던 거 같아요!!! 선혜 뽀에버~
- 김경현 : 회심의 마일스톤부터 매일의 회의 등 매 순간을 함께 피드백을 찾고 방향을 고민해주어 마지막 날까지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. 노션 템플릿도 잘 짜주셔서 팀프로젝트

에 의미있는 기록들을 많이 남길 수 있어 좋았어요!

- 김민석 : 문서화의 달인 / 팀이 될 때마다 구심점이 되셔서 프로젝트 진행 간 이끌어주셔서 상당히 편하게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.
- 최근찬 : 지난번에도 느꼈던것이지만, 정말 리더? 팀원들을 잘 이끌어주셨던거 같습니다. 선혜님의 방향성 덕분에 프로젝트에 동력이 더 크게 생겼던거 같고, 잘 따라갈 수 있었던거 같아요. 기록도 언제나 철저히 해주시고! 감사했습니다.